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全 시군 확대한다

전북도, 기업요구 반영 매뉴얼 공유·기업인력양성팀 신설·기업애로 실시간 지원시스템 구축 등 추진

전북도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손질에 나선다.

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수요자 중심의 기업 맞춤형 정책을 추진,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全 시군으로 확대 하고, 기업인력양성팀을 신설하며, 기업애로 상시 접수체계 및 원스탑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시군에서 활동중인 기업들 가운데 전담제 운영을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전담제를 全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전주시가 주관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A기업 대표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전주시에 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이를 계기로 전주시에서는 이달부터 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시행한다.

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이미 시행 중인 군산, 정읍, 남원, 고창 등의 우수사례를 14개 시군과 공유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온 전담기업 선정과 매칭방법, 기업애로사항 처리요령, 우수사례 등도 매뉴얼로 제작해 시군에 제공하기로 했다.

도입 초기에는 도의 전담공무원이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기업을 방문해 그동안의 노하우도 전수할 방침이다.

이어 그동안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인력양성팀'을 신설한다.

작년 12월부터 10개월간 접수된 1,377건의 애로사항 중 인력부족이 288건(2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문인력, 숙련공 등 인력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인력양성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애로 상시 접수체계 및 원스탑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담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과 병행하여 방문을 원하지 않은 기업은 카카오톡(JB기업 Help), 온라인 포털상담창구(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전화접수(JB기업 114) 등으로 실시간 접수한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전담공무원, 도 해당부서, 전북테크노파크(R&D),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수출) 등이 원팀을 구성하여 원스탑으로 처리한다.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현장지향형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도출된 기업의 요구사항은 중소기업지원정책에 적극 담아갈 계획이고, JB기업 Help(카카오톡)와 원스탑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애로를 실시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500개 전담기업을 대상으로 11월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23 전라북도사회복지사대회에서 유공자들에게 시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사회복지사대회 성료

700여명 참여 유공자 표창·축하공연 등 진행

지난달 31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사회복지사 7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주제로 2023 전라북도사회복지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이병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해 사회복지사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2부에서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유명한 바리톤 김동규와 국내 최정상 소프라노로 구성된 '더 소프라노즈'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평소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묵묵히 애쓰던 사회복지사들은 이날 표창과 축하공연으로 함께 웃으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박주중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대회를 통해 "오늘 대회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실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연대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변화하는 지역 사회 복지수요와 서비스에 발맞춰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치우개 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격려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문가 특강·네트워킹·추진상황 공유 등 진행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그랜드힐스 호텔에서 도내 28개 농생명연구기관, 대학 등 위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출범한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간의 네트워킹과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중간 공유, 전북의 농생명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은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

을 위한 제언(정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생명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권오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R&D사업기획단장)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2015년부터 운영된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도내 28개 농생명기관, 대학 등이 참여해 농생명·바이오 분야 국책사업 발굴 및 지역연안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3일 출범했다.

출발 이후 약 4개월 동안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위원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 간 공동실험연구 지원, 4개 분과별 활동을 통한 기술수요과제 발굴 등 열린 논의의 장을 열었다.

특히, 새만금·농생명분과, 그린바이오분과, 푸드테크분과, 반려동물·말산업분과는 새만금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기존 농생명 부문 간 융합 강화,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 벨트 구축과 말산업특구 활성화의 아젠다를 중점 논의·연구에 힘쓰고 있다.

라승용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에서 전북이 추진할 농생명산업 국책사업 발굴과 산업혁신기반 구축, 도내 혁신자원과 기술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도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 도는 농생명혁신기관 47개, 대학 13개, 박사급 연구인력 1800여명의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도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생명 산·학·연·관이 시너지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농생명 산업수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중훈 경제부지사, 림피스킨병 방역 현장 점검·관계자 격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지난달 31일 정읍시 림피스킨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긴급백신접종 및 거점소독 시설 운영 등 방역 추진상황과 태인 소재 한우농장에서 실시중인 백신접종, 흡혈곤충 방제 및 소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림피스킨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 시·군 보건소와 농축협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주야 전파요인인 모기, 파리 등 흡혈 곤충의 방제 등 철저한 방역을 요청드린다"며, "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지난달 31일 정읍시 림피스킨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긴급백신접종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추진상황과 태인 소재 한우농장에서 실시 중인 백신접종, 흡혈곤충 방제 및 소독 상황을 점검했다.

고, 더불어 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방제·소독을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 한우 농장서 도내 세번째 림피스킨병 확진

지난달 31일 고창군 부안면 소재 한우 농장(27두)에서 도내 세번째로 림피스킨병이 발생해 살처분에 들어갔다.

30일 고창군 부안면 한우농가에서 자가 백신접종 중 눈, 코, 항문 등에 피부병변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다. 의심신고를 받은 즉시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방역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11월 3일까지 도내 모든 소 49만6,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해 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농업기계박람회서 전북 홍보관 운영

전북도가 지난달 31일부터 4일간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하는 '2023 익산농업기계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 익산농업기계박람회는 익산시가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로 2019년 이후 전북에서 처음 개최하는 농업기계 산업 최대 박람회이자 지역축제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200개 농업기계 업체가 참여해 첨단농기계 및 농기자재 종합전시회를 통해 농기계 판매 추진 및 스마트 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게 된다.

부대행사로 세미나, 연시장 운영, 먹거리 장터, 경품지원 이벤트를 실시해 참가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이번 전시회에 홍보부스 2개를 마련해 기업유치 상담을 진행하고, 핵심 요소 부품 시험·연구 구축 장비 등의 시연을 통해 농기계 산업 혁신역량 및 인프라 소개 및 도정홍보를 추진한다.

홍보부스 내에 기업유치상담실을 운영해 도내 이전에 관심있는 기업들에 입주 여건, 보조 혜택 등 맞춤형 상담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나서고, 도의 농업기계 산업 정책 홍보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시장 기부제, 전북관광안내 등 다양한 도정 소식도 안내한다.

또한, 도내 기업의 전동화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자 전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해 공동활용 장비 보유 현황을 소개하고 신규 구축 장비인 3D스캐너를 시연한다.

오백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은 농기계 산업 메카인 도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에 가까이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도는 농업기계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다양한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